

구르미 그린 달빛 '엔딩 요정'

박보검

“엔딩마다 시청률 급상승, 행복했어요”



‘응팔’ 이어 흥행 2연타 ‘달만 봐도 생각날 것 같아’

KBS 2TV 청춘사극 ‘구르미 그린 달빛’은 막을 내렸지만, 주연 배우 박보검의 인기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보검은 조선 순종의 맏아들 효령세자에서 모티브를 딴 왕세자 이영을 연기해 올가을 여심을 제대로 흔들며 놓았다.

올해 초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이어 대항쟁 2연타의 주인공이 된 박보검(23)은 26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보검은 “이제 하늘의 달만 봐도 ‘구르미 그린 달빛’이 떠오를 것 같다”면서 “제게는 축복 같은 작품”이라는 말로 각별함을 표했다.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한 현장이었어요. 한 장면을 포착해도 예쁜 화보처럼 남을 수 있는 귀한 작품이기도 했어요. 이영도 지금껏 보았던 왕세자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캐릭터였어요.”

◇“처음엔 자신감 없어 흔들려…송중기 격려 도움”=2011년 영화로 데뷔한 박보검의 사극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박보검은 “처음에는 연기하면 할수록 저 자신이 작게 느껴졌다”면서 “자신감이 없고 자주 흔들렸다”고 털어놓았다.

MBC TV ‘해를 품은 달’(2012) 등 사극을 여러 차례 경험한 김유정(홍라온 역)과 함께 첫 대본 연습을 했을 때 더 자신감을 잃었다고.

특히 꿈과 야망은 마음 속 깊이 품어둔 채 날라리로 등장한 초반부 이영은 ‘바른 청년’으로 유명한 박보검이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다. 제작진은 박보검에게 “원작에서는 이영의 까다롭고 도도한 면이 부각됐지만, 드라마에서는 천방지축 왕세자에서 성군으로 변모한 이영의 진중하면서도 날카로운 모습도 표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보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한 박보검에게 “자신 있게 힘내서 하라”고 응원하며 밥도 사준 소속사 선배 송중기의 격려도 큰 힘이 됐다.

◇“왕세자로 산다는 건 외롭고 쓸쓸한 삶”=절 없던 왕세자는 사대부들에 휘둘리는 유약한 아버

지와 백성, 사랑하는 여인 홍라온을 지키고자 분투하면서 진정한 군주로 성장한다.

극 중 이영의 대사처럼 “세상에서 가장 높고 좁은 우물”인 궁중궁궐에서 왕세자로 살았던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했다.

인터뷰 내내 웃던 박보검은 사투 진지한 표정으로 “외롭고 쓸쓸한 삶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영이라는 친구에게 아버지, 숙의 마마, 공주를 제외하고는 궁궐 내 모두가 적이잖아요. 의지할 사람은 장 내관과 병연이밖에 없었고. 외로움과 함께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책임감도 컸어요.”

자신보다 어리거나 또래인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 박보검도 극을 이끄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박보검은 “처음에 제가 먼저 캐스팅됐 때는 혼자 배에 탄 기분이라 은근히 부담감이 있었다”면서 “나중에 김유정과 곽동연, 진영까지 모두 캐스팅되고 나니 서로 의지하면서 손잡고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더라”고 전했다.

박보검은 영의정 김헌 역의 찬호진을 비롯한 선배 연기자들도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선배들 앞에서 저는 티끌 같은 존재였다”고 한껏 몸을 낮췄다.

◇“제가 꿈은 명대사는 ‘이영이다. 내 이름’”=김민정 작가가 집필한 ‘구르미 그린 달빛’은 매회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마무리로 눈길을 끌었다. 마무리에 항상 등장한 박보검에게는 ‘엔딩 요정’이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다.

대본을 볼 때마다 설레는 마음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박보검은 “마무리 장면마다 순간 시청률이 확 뛰어서 감사했다”면서 키득거렸다.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뒤 도망치면서 ‘다시 만나면 내가 당신의 강아지가 되겠노라’고 약속한 홍라온과 재회한 이영이 “반갑다, 명명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는 마무리라고.

박보검이 꿈은 명대사는 왕세자가 3회 마지막에 홍라온에게 말한 “이영이다. 내 이름”이다.

그는 “홍삼봉(홍라온)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삼봉이를 벗으로 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대사라 유독 정이 간다”면서 “물론 선배 연기자들과 홍라온 대사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많다”고 강조했다.



“막돼먹은 영애씨”는 출연 1순위

배우 라미란, 한층 세련된 밎상 연기 예고

배우 라미란(41)이 시즌15로 돌아오는 tvN의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한층 세련된 밎상 연기를 예고했다.

라미란은 26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막돼먹은 영애씨 15’ 제작발표회에서 “작년이 끝인가 했는데 올해 또 인사드리게 됐다”면서 “내년에도 인사드렸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라미란은 “바쁘지만 ‘막돼먹은 영애씨’는 1년 계획을 세울 때 1순위로 스케줄을 비워놓고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와 “이번에는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방송되는 타 방송 드라마가 있다”며 “편의를 많이 봐주시지만 촬영하는 데 힘이 많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라미란은 “정말 영애가 결혼을 할 지, 라미란은 워킹맘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궁금하다”며 “이런 게 촬영을 끝내는 힘인 거 같다”고 강조했다.

라미란은 지난 시즌 영애와 같이 디자인 회사를 차렸다가 뒤통수를 치고 혼자 전 직장인 낙원종합인쇄사(낙원사)로 돌아가 부장으로 승진했다.

2005년 영화 ‘진철한 남자’로 데뷔한 라미란은 2013년 시즌12부터 ‘막돼먹은 영애씨’에 합류해 영애의 괴팍한 직장상사이자 워킹맘으로 극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라미란은 현재 KBS 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차인표의 상대역으로 코믹 연기를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막돼먹은 영애씨 15’는 ‘혼술남녀’ 후속으로 오는 31일 밤 11시 첫 방송 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TV programs for October 27th.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for October 27th.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27일 (음 9월 27일 壬午). A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